

그 중의 제일 고전 13:1-13

인간이 한계에 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두가지이다. 예배와 기도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는다. 오늘 말씀은 그 중의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

구원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말씀중 하나이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열까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것은 피조물의 운명이다. 내 몸에 있는 것도 하나님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언약을 잡아야 한다. 언약을 안 잡은 옆집 사람도 잘 산다는 것도 일반은총 안에 누구나 갖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삶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 이 순종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면 절대로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단 한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도 주신다. 안 주시면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 그리고 믿음도 성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가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이 은혜로 인해 예배를 드릴수 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약속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은 인간을 저주에서 건진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진짜 잡는 사람은 인생이 저주에서 나온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사단의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원죄의 저주 깨게 되어 있다.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저주로 몰고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무도 막을 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정복하게 된다. 아주 틀림없고 예외도 없다. 사단의 권세를 깨는 것을 누구나 누리게 된다. 자꾸 듣기 때문에 예사로 들릴수 있지만 어느날 그것이 내게 들어오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때가 진짜 신앙이다. 이 약속을 누리고 그것을 인생에 적용한 사람들은 약속대로 다 되었다. 기생 라합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지, 아마 그 상황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미 답이 나 있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소위, 언약 운동을 선택하게 하셨다. 당연히 자기 민족은 배신했다. 만일 자기 민족이 이겼으면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전쟁은 아주 표본적인 가나안 전쟁이었다. 모든 사람 다 죽었다. 어린 아이까지.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다 죽이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라합과 그와 함께 한 가만만 살아났다. 이것이 언약이다. 노아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 때에도 싹 다 죽었다. 날아다니는 새도 다 죽었다. 노아는 살았고 노아와 함께 있던 짐승도 다 살았다. 이것이 내 언약이라는 말이다. 들어오면 역사 일어난다. 정말 언약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런 예가 한두가지이겠는가? 성경에는 전부 이런 이야기로 도배를 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피를 삶에 적용함으로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1. 그 중의 제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다. 엄청난 단어가 나온다. 너무나 귀하고 누구든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말씀들이다. 1절에 보면 상당히 시적이면서도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 사랑이 없으면 말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2절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다. 3절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비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수가 없다. 부정적인 소리나 비판에 길들여져 있으면 빨리 고쳐야 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살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살릴만한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누구든지 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에게 이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불못에서 해방이 되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다. 우리는 응답이 안되거나 안좋은 일이 생기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이 구원받은 것에 비교할수 있겠는가? 지옥이 어떤지를 확실히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 몇가지는 있다. 분명히 표현할수 없는 굉장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빛이 없다. 아주 캄캄하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인다. 엄청난 이유없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캄캄하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도 없는 것이다. 남을 배려할 여유가 있겠는가?

자기가 죽는데. 배려느커녕, 대화 한마디도 없다. 너무나 두렵고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으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곳이 지옥이다. 너무 힘이 들고 고스톱스럽고 두려우니까 계속 소리를 질러야 한다. 옆에 사랑하고 대화를 하겠는가? 누구를 배려할 무슨 생각이나 들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해방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유를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다. 지옥은 이런 곳일 것이다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지옥은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진짜 천국보다도 지옥견학을 한번씩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명령이요 부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도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싸울때도 있지만 빨리 용서하고 마음을 풀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6: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하였다. 15절에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옛날에 나는 이 말씀을 오해한 적이 있었다. 초신자때 내가 살던 곳 옆에 성공회 교회가 있었다. 신부님이 약을 사러 나에게 왔다. 나는 초신자고 뜨거우니까 전도지를 줬다. 그때 어느날 신부님이 와서 이 말씀을 내놓았다.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옆집사람을 용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제가 아무리 초신자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써 놨긴 써놨는데, 문자적으로는 틀림이 없는데, 내 마음에 분명히 이것은 아닌데 설명을 못하겠는것이였다. 그래서 한두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분명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써 놨다. 그래서 좀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 책도 보고 그러고 어느날,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것이나? 용서하면 살라는 것이다. 니가 너에게 죄지은자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앙심을 품으면 맘이 안 편하다. 내가 용서하면 즉시 평안이 온다. 무슨 뜻인가? 너 아주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라 라는 뜻이다. 이 용서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 사랑도 마찬가지로이다.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구원이 없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니가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살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것인가를 써 놨다. 아무리 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냐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4절에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온유해야 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한다. 자랑도 교만도 없어야 한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는 못한다. 적어도 상식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 넘는 사람이 초월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사람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그러면 잡은 언약대로 인생중에 증거가 나타날것이라는 말이다. 언약을 잡고 참는 것이다. 성취될 것은 언약이니까. 분명히 성취될 것이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고 신앙생활이다. 내 때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되어야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잡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을 믿고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바닥에서 출발할 때 이야기이고 이미 누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말씀대로 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언약으로 잡은 자에게는 나타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약속의 피는 뱀의 머리를 갠다. 우리 인생에 모든 저주를 갠다. 지옥가는 저주만 깨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전에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를 때 우리가 문제 하나도 없을 때 잘 믿는다는 것이냐는 식으로 생각했다. 그 생각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복음을 알고 눈이 열리고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렇지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왜냐면 모든 문제는 정복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스도 십자가가 완전한 대항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한 것이다. 끝까지 믿지 못하고 대충사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생활한다. 바깥에 보면 다 내가 산다. 다른 것은 속이다. 내 손에 무슨 생각으로 다른 사람처럼 사느냐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밥 안 먹어도 되는가? 아니다. 다른 사람도 밥 먹듯 나도 먹어야 하고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해야 한다. 그런

데 속이 다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은 정복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하지 않고 돈을 정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도록 원하신다. 맞다고 생각되면 들고 끝까지 말고 기도해라. 잘 안 믿어질수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응답이 보여야 그때 진짜로 믿는다. 응답이 보일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때에 뭐해야하는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언약을 기도하는 것이다. 약속의 피는 돈을 정복하는 것이다. 내 가정의 모든 저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이다.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믿으면 지옥 안가는 것,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것인가? 당연히 그것이 최고 중요한 것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모든 저주에 대해서 완전 답이라는 것이다. 믿어야 하고 들어와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바깥은 하나도 안 변하지만 속은 다 바뀐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예사로 듣지 말기 바란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안다. 라합을 예로 들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말씀대로 하셔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 안에 들어왔다. 싹 다 죽는데 자기는 안 죽었다. 짐승도 다 죽는데, 자기 가정은 살았다. 이 붉은 주를 매라고 정탐꾼이 말했다. 정탐꾼이 가져 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다. 약속의 피의 상징이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다. 짐승도 다 죽는데. 이것이 내 언약의 피라는 말이다. 너는 내 언약의 피, 그 언약의 집에 있으라는 것이다. 이 약속의 피는 뱀의 머리를 깬다. 원죄의 저주를 깨게 되어 있다. 매일 듣는 소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이것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뱀의 머리를 깨겠다. 원죄 때문에 온 모든 저주를 내가 너에게 빼앗아 내겠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고 축복 행복 다 있는 것이다. 근본 약속이기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복한다. 그래서 근본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도 없다. 근본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완전하고 충분한 답을 주셨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도 라합처럼 내 삶의 현장에 이 피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 피가 내 삶의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고 언약으로 잡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다. 시작하기 바란다.

2. 작품교회

이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 운동이다. 언약을 누리면 응답을 받게 된다. 평범한 진리인데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체험했다.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즉시로 달라진다.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왜냐하면 속이 달라져서 그렇다. 전에는 소망이 없었다. 사실 멍한 상태였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해보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속하면 힘이 계속 살아나게 된다. 증거 나타나기 때문에 힘이 계속 살아나게 된다. 때로는 낙심되어 힘이 사라진 것 같을 때도 있다. 그러나 다시 나타나고 지속하는 것을 반복해서 결국 정복에 도달하게 된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진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해서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격어가지 하는 소리를 하게 되었냐는 것이다. 어떻게 내 그림 속에 우주가 들어오고 보좌가 들어오게 되었냐는 것이다. 옛날의 나를 보면 남미에서 아무리 제자 보좌와도 줄 말이 없었다. 지금은 얼마든지 물려와라, 내가 평생 이끌어갈 답을 가졌다는 생각이 있다. 우리가 제자 모임을 하는데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전도지를 아무리 나눠줘도 전도가 안되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사도바울의 전도를 현장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인생을 정복하는 것이다. 돈만 정복하고 건강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문제나 자녀, 자녀의 미래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도 정복하고 선교도 정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 전도를 통해 역사를 바꿀 것이냐? 남미의 흐름을 바꾸고 미국의 영적 흐름을 뒤집어야 한다. 필자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언약이 있다. 이 자체가 예전의 나와 비교하면 천지차이 이상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복음을 받은 자는 전부 다 이렇게 된다. 예외 없다. 안되는 경우 없다. 안되는 것 같아도 언약을 계속 누리고 견디어 보라.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된다. 언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다. 말씀대로 된다. 언약을 막을 자 없다. 너는 반드시 정복한다. 세계의 역사를 바꾸라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흐름을 뒤집어라, 사도바울처럼. 이것이 언약이다. 우리는 이런 언약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안디옥교회, 로마교회가 그랬다. 이들은 시대적인 교회였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담당한 교회였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을 담당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교회나 개인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진 플랫폼 교회였다. 교회사 뿐 아니라 세상 역사에도 이들의 복음이 세상 역사를 결정했다. 교회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세상 역사는 복음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세상 역사는 아무 힘 없다. 복음을 따라오게 되어

있고 정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그 시대의 전도자들을 세상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다. 그 당시에 세상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따라갔다. 모세를 따라갔다. 요셉이 애굽의 역사를 뒤집어 버렸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우리가 잡은 언약이다. 눈 열리기 바란다. 되든 안되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 속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의 역사가 복음을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마 24:14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 없이 기준이 워낙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면 싹 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도 못 막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사의 운명이다. 운명이란 못 바꾼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시대적인 작품이 되어야 한다. 위하여 우리는 중직자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작품 교회를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옛날에는 중직자를 세울때에는 교회 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교회 밖을 볼 능력이 없었다. 중직자들, 목사들. 왜냐하면 복음이 없었으니 눈이 안 열리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같은 말은 양심상 못한다. 왜냐? 답이 없으니 허공을 치는 소리인 것이다. 내가 세계 복음화를 말할 때면 그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말을 하지 답이 없는데, 양심상 그 말이 나오겠는가? 눈은 또 거기에 맞춰지겠는가? 우리는 앞으로 적어도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주 대표, 담당자 장로 50명은 있어야 한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처음은 남미 나라 담당이었다. 남미도 조만간 나라 다 합치니 40개가 넘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할라니까 그렇고 여하튼 나라 담당. 가족들로 나라담당이 되어서 우리와 연결된 선교사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학때는 아이들과 같이 한번 가보는 것이다. 평소에 거기서 일어난 것들, 문 열린 것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니 않나? 아이들이 이 소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수가 없는 것이다. 목사라 이런 소리 하는가?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해야지? 속은 것이다. 나도 예전에 그랬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이 안되어 눈이 안열려 그렇다. 눈 열려야 한다. 당연히 눈이 열려야 하고 응답과 축복 받고 그것으로 인생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 놓고 기도해야 한다. 눈 열여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로마도 봐야 하는데 주대표 장로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교회가 더 커져가 두가정 세가정 붙어야 한다. 당연히 남미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나? 교회 안을 바라보면서 너는 되고 안되고, 그러는데, 자격 되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영적으로 보면.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나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뒤집었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로마를 정복해야 한다. 미국을 이대로 두면 안된다. 우리가 미국을 정복하겠는가? 나는 불신앙이 많아서 그런지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워야 한다. 그냥 키우게 아니라 서밋으로 키워야 한다. 교회의 서밋이 장로인데, 렘넌트 장로가 계속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멀리 봐야 한다. 그래야 큰 것을 안 놓친다. 기도라도 커야 한다. 그래서 멀리 보고 가능하면 많이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이 지원해주기 바란다. 장로님들이 지원제도 잘 만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을수 있도록 고민 많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장로님도 인간이기에 부작용날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고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작품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온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협조해야 한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 사람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해야 한다. 다민족 중직자 많이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결국 다민족 중직자가 한국 중직자보다 더 많아야 정상이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응답이 바뀐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뀌고 그래가 있으면 인생도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망대로 안되기 때문에 누리라는 것이다. 생각이 내것같아도 내 맘대로 안된다. 장로님들은 이미 메시지와 훈련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교회를 위해 이 작업을 할 것이다.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하고 협조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요한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작품교회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실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이게 십자가이다. 우리 중에 누가 남을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약속의 피를 완성하신 것이다. 이 피의 권세를 이길 것은 세상에 없다. 하늘나라에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권세를 이길 것은 아무데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피이다. 대못이 박혀서 죽으실때까지 기다려서 이루신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그리고 언약만 잡고 고백하기 바란다. 이 작품 인생이 모여 작품교회가 되는 것이다.